

## “광주 민간공항 조건 없는 이전” 무안 국제공항 도약 발판 마련

민선7기 광주혁신위 약속·전남도 환영 ... 연내 이전 구체화  
활주로 연장·계류장 확대 등 정부 대규모 투자 반영 과제로

이용섭 당선인의 민선 7기 광주 혁신위 원회가 광주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을 약속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멈춰버린 정부 투자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광주공항과의 통합 후 무안공항 시설 보완 방침을 고수하면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 이어 제5차 계획(2016~2020)에서도 무안공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혁신위는 24일 "민간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없이 국토 서남권의 관문인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오는 7월 나올 예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전남도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영록 당선인의 취임준비 기확단도 즉시 환영 입장을 표명하면서 올해 내 광주공항 이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안공항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양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당장 활주로 길이 2800m에서 3200m로 연장(354억원), 수하물 처리 확대(46억원), 계류장 확대(80억원) 등에 모두 52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10년 이후 매년 이 예산을 반복해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번번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미흡한 공항 편의시설의 대폭 개선, 광주·전북·충남·경남 등에서의 무안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일본, 중국 위주 노선에서 탈피해 해외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노선, 러시아 등 극동 지역 국제노선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선 연결 기능을 하는 무안-인천, 무안-김해 노선 신설 등을 통해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허브공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북 새만금에 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서둘러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혁신위의 민간공항의 선 이전 결정으로 인해 향후 군 공항 이전 논의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암, 무안, 해남, 신안 등지를 예비 후보지로 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국방부의 군사작전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예비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이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국방부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하면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이전작업이 시작된다.

노경수 광주혁신위원회 도시재생분과위원장은 "민간공항 이전 시 광주시민이 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군 공항 역시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 이전 후보지의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기금과 국책사업 선정 등을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올지마 손흥민”...대통령의 위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관람한 뒤 아쉽게 패한 한국대표팀 리카를을 찾아 울먹이는 손흥민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직, 안 끝났다 ... 27일 독일과 끝장 승부

한국, 멕시코에 1-2 분패

한국의 2018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와의 F조 2차전에서 1-2로 졌다. 조별리그 2연패지만 16강 불씨는 살아있다.

〈관련기사 14·20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4일 멕시코와의 F조 2차전에서 두 경기 연속 패널티킥을 허용하면서 1-2패를 기록했다. 전반 24분 장현수가 안드레스 과르다

도의 크로스를 슬라이딩으로 막으려다 핸드볼 파울을 기록했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스웨덴과의 1차전에 이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후반 21분 멕시코 공격의 쌍두마차인 이르빙 로사노와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의 역습에 두 번째 골을 허용했다.

두 경기 연속 '0패' 위기에 몰린 한국을 구한 것은 에이스 손흥민이었다. 손흥민

은 후반 추가 시간 왼쪽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원발 중거리포로 이번 월드컵 한국의 첫 득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한 한국은 1-2로 졌다.

F조는 27일 오후 11시에 시작하는 최종전에서 16강 진출팀이 결정된다. 한국이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독일에 2점차 이상 승리를 거두고, 스웨덴이 멕시코에 패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남북 이산가족 200명 8월 20~26일 금강산서 상봉

2년 10개월 만에 재개

남북은 지난 22일 적십자회담을 열고 오는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며 "상봉 행사는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하고,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때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1명의 가족을 동반하도록 했다.

남북은 생사확인외에서는 7월3일까지, 회보서는 7월25일까지 교환하고 최종명단은 8월4일 주고받기로 했다.

남측은 행사 및 통신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봉 시작 5일 전에 금강산에 파견해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다. 또 상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봉 장소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보수하기로 하고 남측이 시설 점검단을 6월27일부터 파견하기로 했다.

남북은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합의되는 시기에 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을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풍운의 정치인’ JP

〈1926~2018〉  
김종필 전 총리 별세 ... 정치인 추모 잇따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김 전 총리의 작고로 '3김 정치'의 주인공이었던 김대중·김영삼·김종필 트로이카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관련기사 2면〉

김 전 총리는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가담하면 서 현대 정치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하고 6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7·8·9·10·13·14·15·16대를 거치며 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그의 정치 역정은 영욕과 부침을 거듭하면서 '영원한 2인자'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97년 대선에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성사 시키며 수평적 정권교체와 함께 국민의 정부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훈장 중 최고인 무궁화장 추서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쿠데타에 일조했으며 독재정권에 부역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깨끗한 바다 만들기

## 사단법인 바다녹화운동본부 가 앞장섭니다.

해양수산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오염, 사고, 재해 등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개펄의 황폐화, 연안 어종의 감소, 바다 경관의 훼손 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건강한 바다,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해조류를 심는 '바다식목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연안 임반의 75%에 달하는 5만4,000ha의 바다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해도 완도, 여수는 물론 양양, 울진, 포항, 부산, 김포, 태안, 부안, 제주에서 바다 숲 조성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기관 단체 등에서도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바다녹화운동본부(이사장 정영호)를 발족시켜 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중심으로 430여 명의 회원과 9개 대학 동아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다녹화운동본부는 앞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바다녹화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바다 녹화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바다녹화 운동이 제2의 산림녹화 차원의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에 깨끗한 바다를 건네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단법인 바다녹화운동본부 <http://www.seasoop.co.kr/> 회원 가입 및 참여 문의

### 051-740-2544